홍명섭 · 〈철길시리즈〉, 2004

2004 중진작가전 Ⅰ · Ⅱ

윤성진 · 〈십자가〉, 골판지, 200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에서는 2004년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04 중진작가전 I – 윤성진 개인전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와 중진작가전 II – 홍명섭 개인전 〈수평에의 의지〉를 마련하였다. 중진작가전 시리즈는 한국현대미술의 허리세대인 중진작가들의 작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미술의 현주소를 가늠해 보고자 계획되었다. 또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활동을 주로 지원하는 인사미술공간과 차별화하는 측면에서 마로니에미술관은 중진작가들에게 있어 최근 들어 전시공간의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점을 주시하면서 작가적 역량을 검증 받은 중견작가들의 개인전을 기획하게 되었다. 올해 중진작가전은 총 4회에 걸쳐 4명의 작가를 초대하였다. 1차로 3월에는 현장성과 일시성을 주된 개념으로 설치작업을 하는 작가인 홍명섭과 자연에서 모티프를 얻어 조각 작품을 제작하는 조각가 윤성진을 초대하였다.

홍명섭과 윤성진은 실험적이고 독자적인 작품세계로 잘 알려진 작가들로, 홍명섭의 경우 왕성한 작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그의 개인전을 감상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개인전은 그의 작업의 변화과정과 새로운 조형적 구성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장성 · 일시성을 작업의 주된 개념으로 삼고 있는 홍명섭은 이번 전시에서 대화의 방식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대화란 논리의 통합이 아니라 느낌 영역의 확대이다. 작품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있어 작품의 통제자로서의 작가만이 아닌, 작품을 감상하는 이를 포함한 모두가 관여한다. 〈그물 물결〉, 〈평면 철길〉 등의 작품에서는 '본다는 것'이 시지각 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행위임을 보여준다. 즉, 본다는 것은 공간에 노출되거나 포획된 우리의 몸이 느끼는 감각이고 몸의 경험이다. 이렇듯 우리의 신체를 얽매는 드로잉 속을 배회한다는 것은 우리 의식의 환각적이고 몽상적인 곡예이다.

윤성진의 경우, 1995년 프랑스로 건너간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여는 개인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시라 하겠다. 이번 전시회는 윤성진의 프랑스 생활 10년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 있다. 그는 십자가라는 소재를 가지고 '삶과 생명을 통한 희망의 추구'라는 주제를 자신만의 고유한 조형적 방법에 의해 표현해 내고 있다. 기독교적 상징들 중, 작가 윤성진이 주시하는 십자가는 가장 많이 재현되는 상징물이며 더 이상 기독교적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보편적 언어이자 기호이다. 그래서 작가는 그의 조각 작업을 통하여 십자가라는 소재에 생명적인 힘을 불어넣음으로써 희망적인 메시지를 찾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대하는 관객들은 그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그의 작품 앞에서 삶에 대한 희망과 충만함을 느낀다.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을 어우를 수 있는 십자가의 상징적 특성은 관객과 작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존재한다.

전시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김형미 ⓣ7604-726, ⓕ7604-780),
작가 홍명섭 (011-9800-4396, metahong@hanmail.net),
작가 윤성진 (016-254-2808, sjyune@yahoo.co.kr,
자료참고 : www.webhard.co.kr
(ID : sjyune1122, password : 1122)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홍명섭 개인전

- 전 시 명 : 홍명섭 개인전 〈수평에의 의지 ; Horizontality〉
- 전시개막 : 2004. 3. 26(금), 오후 5시
- 전시기간 : 2004. 3. 26~4. 25
- 전시장소 : 마로니에미술관 제1전시실
- 전시관람 : 오전 11시 ~ 오후 8시(매주 월요일 휴관)
- 관 람 료 : 무료

윤성진 개인전

- 전 시 명 : 윤성진 개인전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Par Lui, Pour Lui〉
- 전시개막 : 2004. 3. 26(금), 오후 5시
- 전시기간 : 2004. 3. 26~4. 25
- 전시장소 : 마로니에미술관 제2전시실
- 전시관람 : 오전 11시 ~ 오후 8시(매주 월요일 휴관)
- 관 람 료 : 무료